

## 죽이는 글자인가? 살리는 영인가? (1)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듣고 믿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며, 또한 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죽이는 글자가 되기도 하고 살리는 영이 되기도 한다.

고린도후서 3:6에 “의문(儀文)은 죽이는 것이요 영(靈)은 살리는 것임이니라”고 하였다.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 번역하였다. 그런데 “의문”이나 “율법 조문”은 원래 “글자(the letter)”를 가리킨다. 율법이나 율법의 조문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롬 7:7)고 하면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롬 7:12)고 하였다. 율법이나 율법의 조문은 다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죽이는 것이 될 수 없다. 율법이나 율법의 조문을 지키지 않음으로 죄인이 되고 죄의 삯인 사망에 처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죽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의문”이나 “조문”을 꼭 율법으로 제한해서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 율법만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 전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글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구약의 율법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얼마든지 죽이는 글자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단들을 보라! 그들이 구약의 율법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자신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신자 역시도 성경을 글자로만 대하면 얼마든지 자신을 죽이고 남들도 죽이는 일을 감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만 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이론과 구미에 맞추어 난도질하고 더하고 빼는 일은 재앙과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다(계 22:18-19).

심지어 율법을 글자로만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대신 예수님을 책잡아 고소하고자 시험하였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요 8:5)고 묻지 않았는가? 돌로 치라하면 당시 유대 민간에게 사형집행권을 허락지 않은 로마법을 어긴 죄로 고소하고,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율법을 범한 죄로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율법을 글자로 보면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율법을 주신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는가! 이처럼 글자는 죽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이는 글자가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가? 먼저 본문의 “살리는 것은 영이니”에서 “영”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영을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물론 성령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살리는 영이시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비롯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the written words of God)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말씀(the living words of God), 영의 말씀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돌판에 쓴 조문이나 죽은 글자가 아니라, 마음 판에 새겨서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영”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정의를 내리셨다. 바로 요한복음 6:63의 말씀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영이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영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내가 너희에게 계속적으로 말해왔던 말씀들(the words that I have spoken to you)”로서 동사의 시제가 현재완료형이다. 예수님은 2천 년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계속적으로 말씀해오신 분이시다는 뜻이다.

따라서 성경을 기록된 문자나 죽은 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으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말하고, 전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살리는 영, 생명과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당신에게 있어서 성경은 무엇인가? 죽이는 글자인가? 아니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읽고 믿으며 전하며 살아서 당신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이 되고 있는가?